남해안 일대 노략질 사건?… “제주성 전투 반드시 추가돼야”

<2> 제주대첩은 왜 잊혔나

▲ 명종실록에 기록된 16세기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기록 중 일부. 조선왕조실록 인터넷판.

◀ 2000년 12월에 제주시 원도심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오현교에 세워진 ‘을묘왜변 전적지’ 표석. 당시 제주시와 한라일보사유적지표석세우기추진위원회 명의로 설치했다. 이상국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판에서 ‘을묘왜변(乙卯倭變)’을 검색하면 이런 ‘정의’가 뜬다. ‘1555년(명종 10) 왜구가 전라남도 강진·진도 일대에 침입해 약탈과 노략질한 사건.’ 이칭은 ‘달량왜변’으로 소개됐다. 거기엔 ‘제주’가 없다. 뒤이은 ‘역사적 배경’을 읽어 내려가도 마찬가지다. 조선왕조실록에 1555년 을묘년에 전라도 일대에서 퇴각하던 왜구가 제주 앞바다로 집결해 전투가 벌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 창고’라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속 ‘을묘왜변’에는 제주가 빠져 있다. 그래서 묻는다. ‘을묘왜변 제주대첩’은 왜 잊힌 역사가 되었나.

명종실록에 제주 ‘승첩’ 기록 있지만 현대적 조명 작업 미미
80년대 논문에도 “을묘왜변과 제주 학문의 사각지대” 지적
최근 논문 발표 잇따라 눈길… “최종 결과 제주대첩 주목을”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공격해 큰 승첩 거둬”=명종실록 명종 10년 7월 6일 기사는 “제주목사 김수문(金秀文)이 장계(狀啓)하였다”로 시작된다. “6월 27일, 무려 1000여 인의 왜적이 뭍으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신이 날랜 군사 70인을 뽑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돌격하여 30보(步)의 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살에 맞은 왜인이 매우 많았는데도 퇴병(退兵)하지 않으므로 정로위(定虜衛) 김직손(金直孫), 갑사(甲士) 김성조(金成祖)·이희준(李希俊), 보인(保人) 문시봉(文時鳳) 등 4인이 말을 달려 돌격하자 적군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홍모두구(紅毛頭具)를 쓴 한 왜장(倭將)이 자신의 활솜씨만 믿고 홀로 물러가지 않으므로 정병(正兵) 김몽근(金夢根)이 그의 등을 쏘아 명중시키자 곧 쓰러졌습니다. 이에 아군이 승세를 타고 추격하였으므로 참획(斬獲)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튿날 명종실록 기사에는 제주목사 김수문에게 하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왜적이 변경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에 병력이 미약하고 원병(援兵)도 때맞추어 이르지 못하므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심히 염려하여 잠자리조차 편치 못한 지가 여러 날 되었다”며 “평소 경의 충의(忠義)와 목숨을 나라에 바쳐 북채를 쥐고 죽으려는 정신이 아니었다면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공격하여 이와 같은 큰 승첩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라고 치하했다는 것이다.

제주대첩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여러 기록에 등장한다. 1601년 7월 발생한 길운절 등의 모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던 김상헌의 ‘남사록’,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 1704년 이형상의 ‘남환박물’, 1765년 윤시동의 ‘증보탐라지’ 등으로 주로 김수문 목사의 활약에 초점을 맞춰 을묘년의 사건을 적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제주 지방사 연구의 태두’로 불리는 심재 김석익이 한문으로 쓴 ‘탐라기년’에 제주대첩이 기술된다. ‘탐라기년’은 을묘년이던 1915년 완성했고 3년 후에 간행된 것으로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제주의 역사를 편년체 통사로 서술했다. 이 중 ‘탐라기년’ 권2에 “을묘(1555) 명종 10년 6월, 왜적이 침입하니 김수문 등이 이를 쳐부쉈다”며 왜적이 화북포로 침범했다는 점을 짚었다. 여기에서 김석익은 훗날 김상헌이 말했다는 대목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왜인 중에 앞뒤로 들어와 노략질함에 한 사람도 뜻을 얻지 못한 것은, 섬을 둘러 석벽이 바다 속에 쭉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하늘이 만든 요해처(要害處)이니 제주의 보배이다. 이로부터 이후 봉홧불에 놀라지 않았으니, 거주하는 백성들이 편안히 잠자리에 들며 근심이 없기가 대개 지금까지 40년이 된다.”(‘역주 탐라기년’, 제주문화원, 2015) 김석익은 ‘탐라기년’만이 아니라 1920년대 ‘탐라인물고’에서 제주대첩 관련 인물인 김성조를 다뤘다. 심재가 서문을 쓴 담수계의 ‘증보탐라지’(1954)에도 제주대첩과 그에 얽힌 인물 이야기가 실렸다.

▶정부군 도움 없이 제주인 자력으로 일군 대첩 연구=제주사람들이 함께해 일당백으로 싸워 크게 이긴 을묘왜변 제주대첩은 아쉽게도 해가 지날수록 그 의미를 새기려는 움직임이 줄었다. 그 후로 이어진 수난과 침탈의 역사가 주는 무게 때문인지 제주섬의 승전사는 도심에 놓인 푯돌 등으로 간신히 기억됐다.

김병하는 ‘을묘왜변고’(‘탐라문화’, 1989)를 통해 “이 왜변은 왜구의 성격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었다. 즉 종래의 소규모 왜구와는 규모와 전쟁의 양상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대일무역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런데 이 분야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된 업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을묘왜변은 5월의 달량왜변과 제주왜변으로 양분되는데 특히 후자의 연구는 학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당시 학계의 현실을 지적했다.

2000년대 이후 을묘왜변을 다룬 학술 논문 중 하나는 윤성익의 ‘‘후기왜구’로서의 을묘왜변’(‘한일관계사연구’, 2006)이다. 윤성익은 이 글에서 “을묘왜변이 일어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해역에서는 다수의 중국인과 일본인 등이 연계된 후기왜구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했다. 윤성익은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이 펴낸 ‘을묘왜변과 제주대첩’(2022)에서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의 왜구’ 집필을 맡아 조선전기의 왜구·왜변과 그 대응책 등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한라일보에 게재된 전문가 연재 ‘제주 유일의 승전 역사 을묘왜변 현장을 가다’에 이어 제주연구원 학술세미나가 개최되면서 제주대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시기에 학술 논문 발표도 잇따랐다.

김기둥은 ‘을묘왜변 전후 제주도(濟州島)의 방어태세’(‘역사와 실학’, 2022)에서 “임진왜란 전 조선이 겪었던 최대 규모의 왜군 침입인 을묘왜변을 전후한 제주도의 방어태세와 왜변의 마지막 전투인 제주성전투”를 들여다봤다. 정현창·김병인은 ‘을묘왜변의 제주성전투 연구: 사찬자료를 중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 2022)에서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제주성전투에 대한 기록은 소략한 까닭에 그 전개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탐라기년’을 통해 왜구의 제주 침입 경로가 화북포일 가능성을 입증하는 등 정부군의 도움 없이 제주인 자력으로 대첩을 거둔 제주성전투의 의의를 살폈다.

가장 최근의 연구 논문은 홍기표의 ‘을묘왜변 제주 대첩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제주도연구’, 2023)로 제주대첩 관련 옛 사료를 일일이 확인하며 “왜구와 제주 민군 사이 제주성을 사이에 둔 대규모 공방전에서 대첩을 거둔 사실” 등에 중점을 두고 재조명했다. 홍기표는 특히 “을묘왜변은 전라도 남해안 일대의 노략질 사건으로만 해설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개정 증보 과정에 “제주성 전투와 제주 대첩이라는 최종 결과가 해설에 반드시 추가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기사는 제주연구원·제주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